

가출여중생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가족미술치료 사례연구

A Case Study of Family Art Therapy to Improve a Runaway Middle School Girl's Self Esteem, Child-Parent Communication, and Family Relationship

김효숙* · 최외선

영남대학교 대학원 미술치료학과 박사과정 ·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교수

Hyo-Suk Kim · Wae-Sun Choi

Doctoral Candidate, Dept. of Art Therapy, Yeungnam University ·

Professor, Dept. of Human Ecology and Kinesiology, Yeungnam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if and how much a family art therapy can influence a runaway middle school girl's self esteem, communication with parents, and family relations. Study subjects are a middle school girl (called S) and her parents, receiving a total of 13 sessions of art therapy from January 3 to March 28 of 2007, held at P-kindergarten located in Kyungbuk province, with each session of 90-120 minutes. Research instruments adopted for the study are a comparison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regarding S's self-esteem and a measure of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S and her parents determined by KFD (Kinetic Family Drawing) in pre- and post-tes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amily art therapy shows its effect on the runaway middle school girls' self-esteem. Second, family art therapy proves to be effective on child-parent communication. Third, family art therapy displays positive influence on family relations.

Key Words : Family Art Therapy, Self-Esteem, Child-Parent Communication, Family Relations

I. 서론

인간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집단이 가족이다. 가족은 개인의 성격 및 행동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가족 내의 인간관계 중 부모-자녀 관계는 가장 기본적이고 영구적인 관계로 인간의 성장 발달에 중요한 결정 요인이기 때문에 가족관계는 소중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기상황, 부모의 불화, 별거, 이혼, 등으로 가족의 위기와 해체 현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가출청소년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10대 소녀의 가출 문제는 가출 이후 겪게 되는 신체적, 심리적 위협을 초래할 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 개입되어 약물남용, 향락산업으로 유입될 위험

성 및 일탈행동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최근 가출여중생이 감금되어 폭행당하고 800여명에게 성매매 당한 사건(뉴스 inside, 2007, 6, 4)은 우리사회의 가출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의미한다.

청소년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한 면이 많다(이영식, 홍성도, 2003). 더욱이 청소년들은 입시 경쟁과 부모의 과잉기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신경과민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잘못된 생각이나 특수한 행동을 함으로써 관심을 끌거나 정신적 장애로 시력이나 소화기 계통, 주의집중력의 약화, 두통 등의 증세를 수반하며 성격적으로 일그러진 성격, 자학, 비정상적인 이성교제, 학교부적응 등이 나타나고 있다(공석영, 1998). 또한 청소년들은 입시경쟁으로 인해 바리장미한 교우관계를

* Corresponding author: Hyo-Suk Kim
Tel: 011-533-7584, Fax: 054) 442-5488
E-mail: onlychildren@hanmail.net

맞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자아정체감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교사와 부모의 지나친 억압과 신경증적 태도, 과잉기대 등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가출로 이어지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 문제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아존중감이 낮음으로써 야기되며(김선관, 2000),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도덕적 일탈행동 수준을 보인다(주경옥, 2001). 자아존중감은 인간을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성장하게하고 생활의 안정감과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건 가운데 하나로써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 행동을 하도록 동기화 된다(Coopersmith, 1967). 특히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인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며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자아존중감 영역 중 가정적 자아와 학업 및 전반적 자아에 영향을 미친다(김희화, 1998). 최유진과 유계숙(2007)도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언어를 통한 보다 직접적인 양육행동으로써 특히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의 매개체인 언어를 통해서 언어에 내포된 의미와 행동양식을 내면화하며 자녀의 인격형성과 사회화 및 정서적 안정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인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매우 밀접한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부모-자녀 관계의 새로운 방향모색을 위해서는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의사소통 양식에서 벗어나 자녀를 완전히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주는 개방적이며 지지적인 의사소통으로의 전환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발달 및 적응을 돕기 위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가출여중생의 심리적인 갈등과 문제행동에 대해 원인을 찾아내고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족미술치료를 적용하였다. 또한 가출여중생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미술활동을 통한 상징화 작업으로 억압된 내적 갈등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 줌으로써 감정을 정화시키고 자아통찰을 통해 가출여중생의 내적 갈등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출여중생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가족관계와 관련하여 가족미술치료로 적용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미술치료를 통해 가출여중생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실증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관련영역에 학문적 기초를 제공하며, 가출여중생의 생활전반에 긍정적인 변화와 학교와 가정에 긍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체계적인 이해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그 결과를 토대로 학교와 가정에서 건강하고 기능적인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 아니라 청소년 생활지도와 예방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변화하는 가족, 행복한 가족을 위한 가족미술치료 사례를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가족미술치료가 가출여중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둘째, 가족미술치료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셋째, 가족미술치료가 가족관계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넷째, 가족미술치료단계에 따라 가출여중생의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가족 관계의 변화양상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가족미술치료와 자아존중감

가족미술치료는 가족체계이론과 미술치료이론을 결합시킨 것으로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신의학분야에서 가족연구에 대한 새로운 경향이 등장한 역동적인 상담방법으로, 개인의 문제행동을 개인의 문제이기보다는 전 가족의 문제라는 전제하에 가족 전체를 미술치료 장면에 참가하도록 하여 가족미술치료를 실시하는 방법이다(권기덕 등, 2000). 가족미술치료는 가족체계 속의 상호작용 양상에 변화를 줌으로써 가족원의 대인관계 기술과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며, 건강하고 기능적인 개인과 가족이 되도록 돕는다(송정아, 최규련, 2005). 대부분의 경우 부부간의 불화로 인해 갈등이 있을 때 부모가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갈등과 불만 속으로 자녀들을 끌어들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부모의 갈등은 전가족의 갈등으로 바뀌게 된다(정경숙, 1985).

가족의 기능성과 가족 개개인의 자아존중감의 관계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자신을 책임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것이며(강승규, 1992), 개인이

자기 자신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것으로 자신에 대해 갖는 태도 속에 나타나는 자신에 대한 가치의 판단으로 자신의 중요성, 유능성, 성공과 영향력, 그리고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기 평가이다(Coopersmith, 1967). 또한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차원으로 자신감, 자기존경, 자기수용, 자기평가, 자기개념, 자기지각과 같은 뜻의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주경옥, 2001).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협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하는 데에 심리적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버리므로 대인관계를 맺는 능력이 저하되고 왜곡된 사고, 공격적인 행동, 충동억제의 결핍 등으로 사회적응력이 낮게 된다(전미향, 1997).

자아존중감 형성은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인간의 초기 관계형성 과정에서 특히 중요하다. 부모가 자녀에게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거나, 자녀가 자기가 치감과 자아존중감을 학습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지 못할 경우, 또는 부모가 역기능적인 모델이 되거나, 의사소통의 내용이 부정적일 경우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직접적으로 손상될 수 있다(정문자, 2007).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일상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개인이 대인간 사회적 행동이나 그 역할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며, 개인의 바람직한 적응이나 건전한 인성발달, 더 나아가 긍정적인 자기실현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송정화, 2005).

2. 가족미술치료와 부모-자녀 의사소통

인간은 가정생활을 통하여 인간관계의 기초를 형성하게 되고 인성발달을 이루게 된다. 특히 부모-자녀 관계는 가장 기본적이며, 인간성장 발달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족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수단인 의사소통은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하고 행복하게 영위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며, 의사소통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것으로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상호반향적 과정(Galvin & Brommel, 1986)일 뿐만 아니라, 가족기능 수행에 있어 빠뜨릴 수 없는 요인이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인은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이며(김희화, 1998),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에서 감정, 느낌, 생각, 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상호간의 공통적 이해를 도모하는 과정이다(안정현, 2000).

가족 간의 상호작용은 반사회적 행동의 습득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며,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 권위적이고 훈계적으로 평가하는 의사소통 형태나 이중속박 의사

전달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이끌게 되어 자녀의 정서교육에 많은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간의 긴장이나 갈등을 생성하기도 하며 자녀의 정신질환을 초래하게 된다(박성수, 1990; 권혜진, 1993). 부모가 자녀에게 반응하는 태도에 있어서 명령, 경고, 처벌, 모욕, 설교 등과 같은 형태로 의사를 교환할 때 자녀는 방어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즉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상호적이지 못하고 일방적이 될 때 역기능적이 되기 쉽다(Meyer, 1976).

청소년 비행은 부모의 효율성 있는 의사소통기술 부족 및 의사소통 기술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특정 지어지는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과 관련이 있다.

부모-자녀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간의 공통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를 부모에게 표현하고, 자신의 의사를 왜곡됨이 없이 전달하므로 내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다(민하영, 1991). 따라서 권위적이고 훈계적인 부모-자녀 의사소통 양식에서 벗어나 자녀를 완전히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개방적이며 일치적인 의사소통을 하려는 전환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환노력을 통해서만이 부모-자녀간의 긴장이나 갈등 관계를 해소할 수 있으며 청소년기 자녀의 성공적인 발달과업 완수 및 바람직한 사회적 적응을 유도할 수 있다.

부모의 정서적 긴장상태나 부정적인 태도로 인해 일관성이 없고 응집력이 상실되면 자녀들에게 파괴적이고 공격한 반사회적 성향을 조장하여 비행을 저지르게 만든다(정주향, 1993). 김봉소, 이희도, 김서린(1974)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무관심, 신체적 학대, 과잉보호는 상호간의 부정적 태도, 가족 간의 결속력 약화 등과 부정적 상호역동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건실한 자아성장에 나쁜 영향과 비행행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부모-자녀 관계에 관련된 많은 문헌연구는 가족의 상호작용과 문제자녀는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정주향(1993)과 최선남(1997)은 부부의 불화관계나 부적응 관계가 자녀들의 부적응 또는 비행과 상관이 있다고 보고, 가족미술치료를 통해 문제행동과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최선남과 최외선(2000)은 가족미술치료가 실적으로 인한 위기 가족의 위기극복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3. 가족미술치료와 가족관계

가족미술치료는 가족관계를 변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미술활동을 통하여 가족이 자신의 경험을 원하는 방식으

로 자유롭게 표현하게 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가족의 초기 기억을 회상하도록 하는 투사기법을 통해 가족의 역동성을 잘 드러나게 하는 가족치료 방법이다. 치료자는 미술 활동에 나타나는 가족의 투사과정을 통해 관찰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가족체계를 진단하고 치료자가 직접 개입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상황에 투사하게 하여 가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도 한다. 또한 인간경험의 깊은 내면의 정서를 인식하고 가족관계에서 오는 문제점을 가족미술치료를 통해 서로의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고 고통을 예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김영애 역, 2006). 따라서 가족미술치료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통찰하는 가운데 가족관계의 긍정적인 변화와 바람직한 성장을 돕는 전문적 접근방법으로 가족치료에 적절하며 효율적인 치료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부적절한 가족관계를 개선하고 자아존중감과 효율적인 의사소통 증진을 통해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즉 역기능적인 가족관계로 인해 가족이 서로 대화가 단절되고, 그로 인해 심리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가출여중생과 그러한 심리적 환경을 제공한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미술치료를 실시함으로써 가출여중생으로 하여금 가정과 학교생활에서 보다 바람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상북도 G시에 재학 중인 가출여중생(15세)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가출여중생(딸)은 마른 편이며, 복장이 단정하지 못하고 얼굴표정이 어두운 편이다. 부모님과 눈을 맞추지 않고 대화를 피하며 가족과 친밀감을 갖지 못하고, 지시나 규율을 무시하며 충동적이다. 공격적인 행동과 말투로 반항적이며 거짓말을 잘 하며, 화를 잘 내고 자신의 실수나 잘못된 행동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 초등학교 때는 상도 많이 받았고 모범생이었으며 중학교 입학 때는 전교 1등으로 입학하였다. 그러나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급속도로 문제행동을 보이게 되어 성적은 하위권으로 떨어졌으며, 가출, 불량친구와 어울리기, 음주, 흡연 등으로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했다. 학교에서도 학생 상담 자료에 의하면 “죽고 싶다. 미래에 희망이 없다. 학교에 다니기 싫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으며, 반항적인 행동, 불량복장, 수업태

도 불량, 염색, 파마, 무단결석 등의 문제행동으로 담임도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대해서 거의 포기 상태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부모님은 딸이 가출로 집에 연락도 하지 않고 시내에 돌아다니는 등 문제행동을 보여 딸이 잘못될까봐 매우 불안해하였다. 가출하기 전에도 집에서 부모님과 갈등관계가 심각했다. 부모님은 문제가 점점 심각해진 딸의 행동에 화도 나고 염려도 되어 머리카락을 자르고 집나가라며 협박을 하고 폭력을 행사했지만, 딸의 문제행동은 더욱 심각해졌다고 했다.

부는 공무원이며 키는 179cm이고 마른 편이다. 모와 딸에게 불만이 많고 독선적이고 비난적이어서 부부갈등이 심하다. 부는 직장에서 성실하며 모범적이지만 완벽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가족에게 강박적으로 청결을 강요하고 비난적이며 화를 잘 낸다.

모는 키가 157cm이며 왜소한 편이다. 얼굴표정이 늘 굳어 있으며 긴장되어 있다. 자신과 타인에게 부정적이며 타인에게 공격적인 언어표현으로 가족을 비롯하여 인간관계에 갈등이 많다. 사춘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우울증을 호소하였으며, 자살을 수없이 생각하며 살아왔다. 사춘기 때 가출경험이 있으며 결혼 후에는 음주로 인해 부부갈등이 심하였다. 자녀양육에 대해 자신감이 없고 위축되어 있다.

모는 문제행동으로 혼란에 빠진 딸과 가족을 어떻게 구제해야 할지 고통스러워하다가 연구자에게 가족미술치료를 의뢰하게 되었다. 그러나 모는 아버지의 참여가 아주 어렵다고 하면서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을 때까지 우선 딸을 도와주기를 원했다. 그리하여 딸과의 개인미술치료를 12회기 정도 실시한 연후에 가족미술치료를 실시하게 되었다. 연구자가 딸에게 “지금까지 고민이 있고 힘들 때 누구와 상의했느냐”고 묻자, 딸은 지금까지 고민이 있어도 진심을 털어놓고 의논할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고 했으며 집도 싫고 학교생활도 많이 힘들다고 했다. 그러나 연구자와 개인미술치료를 통해 자신의 억압된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게 되면서 자신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으며 방황하고 혼란스러웠던 행동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 딸이 개인미술치료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자 부모는 딸이 변화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면서 가족미술치료를 통해 딸이 문제행동에서 벗어나게 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부모는 딸을 돕고자 함께 미술치료에 참여하는 것을 위하여 가족미술치료를 실시하게 되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가출여중생(딸)에게 자아존중감 검사와 부모-자녀 의사소통 검사(청소년용)를 사전·사후에 실시하였으며, 부모에게는 부모-자녀 의사소통 검사(부모용)를, 가족전체는 동적 가족화를 사전·사후에 실시하였다.

1) 자아존중감

연구대상 가출여중생(딸)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의 척도를 전병제(1974: 107-130)가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 편, 2005: 174-176). 검사 내용은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역산문항)으로 자기와 관련된 진술문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점체계는 4점 Likert 척도로서 '대체로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4점으로 평가하며, 점수범위는 최저 10점에서 최대 4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최미례(2003)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α 계수는 .85이었다.

2) 부모-자녀 의사소통

가족 내의 의사소통 및 세대 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을 평가하기 위하여 Barnes와 Olson(1982)이 개발한 PAC(Parent Adolescent Communication)도구를 김윤희(1989)가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2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하위척도인 개방형 의사소통 유형은 부모-자녀간의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하위척도인 문제형 의사소통은 세대 간의 의사소통에 어느 정도 어려움과 장애가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의사소통에서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부와 모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자신의 지각을 보고하고 자녀는 부 및 모와의 상호관계 및 의사소통에 관한 각각의 반응을 보고하기 위해 부모용, 청소년용 등 두 종류가 있다.

본 검사는 20개의 항목 중 개방형 10문항, 문제형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채점체계는 5점 Likert식으로 개방형 의사소통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부터 '항상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며, 문제형 의사소통은 반대로 '항상 그렇다'에 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에 5점을 부여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긍정적이고 개방적임을 의미한다. 김윤희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값은 부모 개방형이 .74, 문제형이 .73, 총 척도 .77이었다. 자녀용의 경우 개방형이 .82, 문제형이 .78, 총척도에서 .87이었다.

3) 가족관계

가족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투사검사인 동적 가족화를 활용하였다. 동적 가족화(Kinetic Family Drawing: KFD)는 Burns와 Kaufman(1970, 1972)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개인을 통해 가족의 역동성을 파악하는데 아주 유용하다. 인물상의 행위와 그림의 양식(구분, 포위 등), 상징(책상 등), 그림의 역동성(크기, 거리, 방향, 생략 등)등을 기준으로 진단함으로써 가족관계, 부모자녀관계, 형제관계 등 가족 상호간의 정서적 변화와 상호작용을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으며(한국미술치료학회, 1995), 개인이나 가족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진단적 기능과 더불어 자아의 재통합, 가족원에 대한 지각의 변화, 가족관계 개선 등을 촉진시키는 치료적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최외선, 정현희, 2004).

3. 연구기간 및 장소

연구기간은 2007년 1월 3일부터 2007년 3월 28일까지 G시에 소재하는 P유치원에서 주 1회, 90-120분으로 총 13회기 실시하였다.

4. 가족미술치료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가족의 특성에 따라 개발되었으며, 미술치료이론과 실제(한국미술치료학회, 1995)에 있는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연구대상 가출여중생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자녀의사소통, 가족관계 향상에 중점을 두고 고안한 것이다. 프로그램은 초기단계(1회기-3회기)에서는 가족 모두 연구자에 대해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하였으며 가족 간의 친밀감형성에 중점을 두었다. 탐색단계(4회기-7회기)에서는 미술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도록 유도하였으며 가족의 문제에 대해 서로 탐색하는 가운데 가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통찰하도록 도모하였다. 변화단계(8회기-10회기)와 종결단계(11회기-13회기)에서는 미술작업을 통해서 가족의 상호작용을 알게 하였으며 가족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자아존중감 향상과 긍정적인 가족관계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족미술치료프로그램은 <표 1>과 같다.

<표 1> 가족미술치료 프로그램

| 단계 | 회기 | 대상 | 주제 | 활동목표 및 내용 | 매체 |
|----------|----|-------|----------------------------|--|----------------------------|
| 사전 검사 | | 딸 |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 주요 문제 파악 치료목표 설정 | 검사도구 4B연필, A4용지, 지우개 |
| | | 부모 | 부모-자녀 의사소통 | | |
| | | 부모, 딸 | 동적 가족화(KFD) | | |
| 초기 단계 | 1 | 부모, 딸 | 가족체계 | <가족체계진단>을 통해 서로의 느낌을 표현하는 가운데 신뢰감을 형성한다. | 4절지, 크레파스 |
| | 2 | 모, 딸 | 가족협동화 | <비언어적 가족체계진단>을 통해 모녀간의 성격 특성을 파악한다. | 4절지, 크레파스 |
| | 3 | 부모, 딸 | 미래의 우리가족 | 미래의 우리가족에 대해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희망을 가지도록 한다. | A4용지, 색연필 |
| 탐색 단계 | 4 | 부모, 딸 | 지난날의 기억 | 지난 날 서로가 힘들었던 기억을 떠올려보고 억압된 감정표출을 통해 감정을 정화시킨다. | 4B연필, A4용지 |
| | 5 | 부, 딸 | 부: 길, 딸: 혼잡, 나쁜 감정 터트리기 | 폴 그림 작업과 풍선 터트리기 작업을 통해 부녀의 억압된 감정표출로 내적 감정을 인식하고 친밀감을 형성한다. | 색풀, 4절지, 풍선, 싸인펜 |
| | 6 | 부모, 딸 | 손 본뜨기 | 석고 손 본뜨기를 통해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느끼도록 한다. | 석고, 물, 가위 |
| | 7 | 부모, 딸 | 편지쓰기 | 가족이 서로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표현해보는 가운데 가족이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 A4용지, 4B연필 |
| 변화 단계 | 8 | 부모, 딸 | 가족협동화 | <가족체계진단>을 통해 의사 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친밀감형성과 자아성장을 돕는다. | 4절지, 크레파스 |
| | 9 | 부모, 딸 | 가족의 변화 | 가족이 서로 변화된 점에 대해 알아보고 서로 지지해주는 가운데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한다. | A4용지, 4B연필 |
| | 10 | 부모, 딸 | 자유협동화 | 자유롭게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서로의 느낌에 대해 나누는 가운데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한다. | 크레파스, 4절지 |
| 종결 단계 | 11 | 부모, 딸 | 우리가족 | 가족에 대해 <콜라주>로 표현해보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성장발달을 위한 지지를 한다. | 잡지책, 4절지, 풀 |
| | 12 | 부모, 딸 | 배려하기 | 가족협동화를 통해 서로 배려하는 가운데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가족관계를 개선시킨다. | 4절지, 크레파스 |
| | 13 | 부모, 딸 | 가족체계 | 찰흙으로 자유롭게 꾸미는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형성시킨다. | 하드보드지, 찰흙 |
| 사후 검사 | | 딸 |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 치료기간동안 느낀 점과 상담 후 변화된 점에 대해 서로 표현해본다. | 검사도구 4B연필, A4용지, 지우개 |
| | | 부모 | 부모- 자녀 의사소통 | | |
| | | 부모, 딸 | 동적 가족화 | | |

5. 자료 분석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료처리를 실시하였다.

가족미술치료가 가출여중생(딸)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족미술치료 후의 자아존중감 척도의 총점에서 가족미술치료 전의 총점을 뺀 점수로 평가하고, 가족미술치료가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족미술치료 후의 의사소통척도의 총점에서 가족미술치료 전의 총점을 뺀 점수로 평가하

였다. 또한 가족 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족미술치료 전의 KFD와 가족미술치료 후의 KFD에 대한 그림설명과 연구자의 해석, 그리고 가족미술치료과정의 단계에 따른 가출여중생의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가족관계의 변화양상을 비교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가족미술치료가 가출여중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가족미술치료가 가출여중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의 자아존중감 점수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가출여중생의 자아존중감 사전·사후점수 비교

| 구분 | 사전 | 사후 | 변화량 |
|-------|--------------|--------------|--------------|
| | 총점 (표준점수) | 총점 (표준점수) | 총점 (표준점수) |
| 자아존중감 | 19(1.9) | 32(3.2) | 13(1.3) |

자아존중감의 최저점수는 10점이고 최고점수는 40점이다. 여중생의 사전점수는 19점이고, 사후에는 13점이 증가한 32점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2. 가족미술치료가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가족미술치료 과정을 통하여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의 최저 점수는 10점이고 최고 점수는 50점이다. <표 3>에 의하면 딸의 개방형 사전점수는 25점이고, 문제형 사전점수는 28점으로 나타났으며, 사후에 개방형 점수는 35점으로 사전에 비해 10점이 높아졌고, 문제형 점수는 36점으로 8점 높아졌다.

<표 3> 부모-자녀 의사소통 사전·사후 점수 비교

| 구분 | 의사소통 | 사전 | 사후 | 변화량 |
|----|------|--------------|--------------|--------------|
| | | 총점 (표준점수) | 총점 (표준점수) | 총점 (표준점수) |
| 딸 | 개방형 | 25(2.5) | 35(3.5) | 10(1.0) |
| | 문제형 | 28(2.8) | 36(3.6) | 8(0.8) |
| 부 | 개방형 | 17(1.7) | 28(2.8) | 11(1.1) |
| | 문제형 | 19(1.9) | 25(2.5) | 6(0.6) |
| 모 | 개방형 | 22(2.2) | 38(3.8) | 16(1.6) |
| | 문제형 | 24(2.4) | 38(3.8) | 14(1.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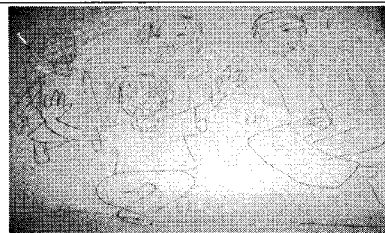
이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이고 개방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부의 개방형 사전점수는 17점이고, 문제형 사전점수는 19점으로 나타났으며, 사후에 개방형 점수는 28점으로 사전에 비해 11점 높아졌고, 문제형 점수는 25점으로 6점 높아졌다. 이는 부의 의사소통 유형이 사전보다 긍정적이고 개방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모의 개방형 사전점수는 22점이고, 문제형 사전점수는 24점으로 나타났으며, 사후에 개방형 점수는 38점으로 사전에 비해 16점 높아졌고, 문제형 점수는 38점으로 14점 높아졌다. 이는 모의 의사소통 유형이 사전보다 긍정적이고 개방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가족미술치료가 가족관계에 미치는 효과

1) 가출 여중생(딸)과 부모의 사전·사후 KFD에 의한 가족관계의 비교해석

가족미술치료가 가출여중생의 가족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족미술치료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의 그림설명과 연구자의 해석으로 비교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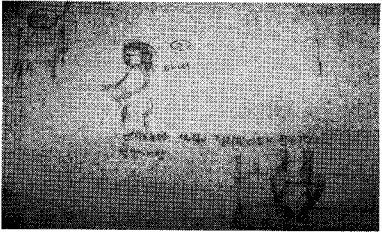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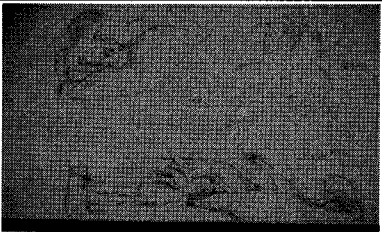
<표 4> 가출여중생(딸)의 사전·사후 KFD에 의한 가족관계의 비교분석

| | 사전 | 사후 |
|--------|---|--|
| KFD |  |  |
| | <그림 1> | <그림 2> |
| 인물상 특징 | 자신(딸)은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이며, 부는 TV를 보고 있다. 모는 부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 동생이 귀엽게 떠들고 있고, 가족 모두 즐겁고 환하게 웃는 모습에서 화목한 가족임을 알 수 있다. |
| 인물상 행위 | 자신(딸)은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하고 있으며, 가족과 고립되어 있음. 가족과의 정서적 단절을 의미한다. | 가족과 함께 즐겁게 웃고 이야기 하는 모습에서 가족과 정서적으로 친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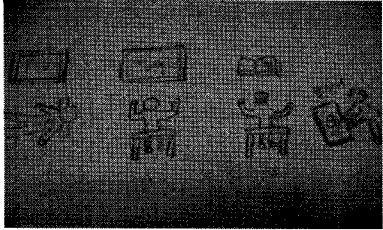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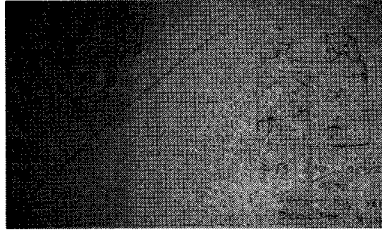
<표 4> - 계속

| KFD | 사전 | 사후 |
|----------|---|--|
| 그림 양식 | 모-부-동생-본인 순으로 그렸다. | 본인-모- 부-동생 순으로 그렸다. |
| 역동성 (크기) | 부를 가장 크게 그렸다. | 부를 가장 크게 그렸음. 전체적으로 크게 그렸다. |
| 상징 | 싱크대는 욕구가 안정적으로 만족되지 않는 불안감을 의미하며, 공부하는 모습은 가족과의 고립과 정서적 단절을 보여준다. | 가족의 모습이 전체적으로 크고 밝은 모습으로 그려졌음. 부가 가장 크게 그려졌으며,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 |
| 딸의 설명 | 부는 TV보고 있으며, 동생은 까불거리고 있고, 본인은 컴퓨터를 하고 있으며 공부는 하나도 안한다고 했다. 엄마는 설거지 하면서 아빠가 화낼까봐 아빠 눈치만 살피고 있다. | 가족모두 밝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며 동생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서 모두 즐겁게 웃고 있다고 했다. 가족 모두 온갖 이야기를 터놓고 해도 긍정적으로 받아준다고 했다. |
| 연구자 해석 | 모가 부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모습에서 부와의 심리적 갈등과 불안이 엿보인다. 굵은 선 안에 갇혀 있는 딸은 가족과의 친밀감이 없으며, 고립과 단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모의 눈치 보는 모습과 아들의 까불거리며 부의 비위를 맞추는 모습에서 역기능가족임을 알 수 있다. | 가족이 모두 밝고 환하게 웃는 모습에서 서로 편안해졌으며, 친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가 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 않는 전체적으로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지며, 평온함을 느낄 수가 있으며, 가족관계가 서로 친밀해졌으며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

<표 5> 부의 사전·사후 KFD에 의한 가족관계의 비교분석

| | 사전 | 사후 |
|----------|--|--|
| KFD |  |  |
| | <그림 3> | <그림 4> |
| 인물상 특징 | 모의 불안한 모습을 못마땅하게 지켜보고 있는 부 자신은 지쳐있다. 딸은 집에 없으며 아들은 공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집안의 분위기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긴장감이 감돈다. | 사전에는 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가장 먼저 그렸으며, 딸과의 관계가 편안해 졌음을 알 수 있다. 아들과 장난치는 모습으로 나타나 가족과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준다. |
| 인물상 행위 | 모를 감독하며 지켜보는 모습은 가정으로부터 행복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폐쇄적인 사고의 소유자로 보여 진다. | 아들과 함께 뒹굴며 장난치는 모습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았으며, 편안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그림 양식 | 아들-모-자신(부) 순으로 그렸으며 딸은 집에 없음. | 딸-모-아들과 장난하고 있는 부 자신의 순으로 그렸음. |
| 역동성 (크기) | 자신을 가장 작게 그렸으며, 지면의 아래쪽에 위치한 모습은 불안감과 패배감으로 보여 짐. 자신의 모습은 지쳐있으며 모에 대한 불만적인 모습으로 보여 진다. | 자신을 가장 크게 그렸으며 인물상이 전반적으로 크게 나타나 가족과의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
| 상징 | 아들의 공부하는 뒷모습은 가족과의 고립과 정서적 단절을 의미한다. 딸 방의구획은 감정적 격리를 의미하며, 딸의 행동에 대한 불안감, 갈등, 긴장감 등 부정적인 감정으로 보여 진다. | 안식이나 오락을 의미하는 TV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편안한 모습임. 딸의 방에 구획이 없어졌으며, 책을 보고 있는 딸의 모습에서 관계가 편안해진 것으로 보여 진다. |
| 부의 설명 | 부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모가 청소하는 척 안질부질 하며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라고 했으며 본인은 짜증내며 모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 딸은 책을 보고 있고, 모는 설거지를 하고 있다고 했다. 부는 아들과 함께 뒹굴며 TV 보면서 장난친다고 했다. |
| 연구자 해석 | 딸이 생략되었으며, 부정적인 관계로 보인다. 아들의 컴퓨터 하는 뒷모습은 고립감을 느낄 수 있으며, 모의 행동을 감독하듯이 불만스럽게 지켜보는 모습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부적절한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없으며 정서적인 친밀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딸을 가장 먼저 그렸으며 딸을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하게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 지며, 아들과 함께 장난치는 자신의 모습은 편안하고 안정적인 모습으로 가족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6> 모의 사전·사후 KFD에 의한 가족관계의 비교분석

| | 사전 | 사후 |
|----------|---|---|
| KFD |  <그림 5> |  <그림 6> |
| 인물상 특징 | 자신(모)의 모습이 작고 옆모습으로 나타났으며 얼굴이 텅 비어있어서 희망이 없어 보이며, 가족 내에 느끼는 갈등과 정서적 어려움을 회피하거나 거리감을 두려는 시도로 보인다. | 부와 함께 자는 모습으로 정면의 모습이며, 얼굴표정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
| 인물상 행위 | 자신(모)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며 옆모습이다. 가족과의 대화가 전혀 없으며, 아이들의 모습은 도피적인 경향과 가족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억압된 분노감을 시사한다. |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있으며, 부부가 다정하고 편안하게 잠자는 모습임. 온화하고 우호적인 부부 상호관계를 암시한다. |
| 그림 양식 | 부-아들-딸-모 순으로 그렸다. | 딸-아들-부-모 순으로 그렸다. |
| 역동성 (크기) | 모 자신을 가장 작게 그렸으며, 옆모습으로 그렸다. | 모 자신을 정면으로 표현하였다. |
| 상징 | TV와 컴퓨터 책, 설거지를 각자가 하는 뒷모습에서 가족과의 친밀감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얼굴표정이 생략되어있는 것은 움츠러들고 겁이 많으며, 위축된 모습으로 보여 진다. | 침구의 상징은 부에 대한 짜증과 불면증에 시달렸던 예전의 모습으로 부에 대한 거부감과 퇴행, 그리고 억울한 감정으로 보여 진다. 이불의 꽃은 아름다움과 사랑을 상징하며, 성장발달을 의미한다. |
| 모의 설명 | 부는 누워서 TV 보고 있으며 아들은 컴퓨터하고 있고, 딸은 공부하고 있다고 했다. 자신은 부가 화를 낼까봐 불안한 눈빛으로 눈치를 살피며 설거지를 하고 있다. 부가 퇴근하고 오면 늘 불만을 하고 화를 내기 때문에 가족 모두 긴장을 한다고 했다. | 아이들이 서로 사이가 좋아졌다. 옛날에 짜증을 많이 냈으며,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지금은 편안하게 취침하는 행복한 모습이다. 그전에는 부가 싫어서 밖으로 피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옆에 있는 것이 편안하고 좋다고 한다. |
| 연구자 해석 | 가족의 얼굴표정이 나타나지 않아 가족과의 정서적 거리감과 심리적 갈등, 부적절한 관계임을 알 수 있으며,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서로 없는 단절된 가족관계로 보여 진다. 인물상이 작고 배면으로 나타나 모의 열등감과 무능력, 부적절한 감정, 위축, 불안감, 소심한 면을 알 수 있다. | 구분은 자녀에 대한 밀착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으로 보여 지며, 부와 함께 나란히 잠자는 모습은 부부관계가 긍정적으로 회복되었으며, 안정적이고 편안한 관계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2) 가족미술치료단계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가족관계의 변화양상

회기별 미술활동 과정 중의 가족구성원의 활동 내용과 공통적인 반응과 특징에 대해 치료의 초기단계, 탐색단계, 변화단계, 종결단계의 4단계로 나누어 요약 기술하였다.

가족미술치료프로그램의 질적 분석을 위해서 회기마다 미술활동을 통한 관찰을 중심으로 평가하였으며, 가족구성원들의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표현되는 행동과 표정, 말투 등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관찰하였다. 미술활동과정 속에 자기표현을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탐색하게 하고 자신의 작품에 대해 무언가를 느끼고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으며, 작품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내도록 초점을 두었다. 또한 가족구성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과 가족관계의 변화된 모습을 중심으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가족 관계를 평가하였다.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은 도입, 미술활동, 느낌나누기, 정리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도입부분에서는 프로그램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가족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 느낌을 나눈 후 주제에 관한 흥미를 갖게 하여 미술활동으로 전개되도록 하였으며 미술활동 후 작품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는 과정 속에 가족구성원에 대한 연구자의 공감과 반영, 적절한 질문과 직면, 장점을 찾아주는 등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로 통찰에 이르게 함으로써 자아존중감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증진, 그리고 긍정적인 가족관

계를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 회기별 미술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작품은 생략하였으며 내담자의 억압된 감정을 표출하는 내용, 연구자의 공감과 반영, 직면,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로 통찰에 이르게 하는 질문과 내담자가 문제를 자각하여 통찰을 얻는 과정과 내담자의 문제행동에 대한 심리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요약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① 제 1 단계: 초기단계(1-3회기)

프로그램 구성 방법은 초기단계에서는 관계형성과 신뢰감형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게 하고 치료적 동맹을 촉진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1회기에 <가족체계진단>에서 부는 축구공을 그릴 때 2-3개를 그리면 되는데 바보같이 많이 그렸다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너무 서둘러 그려서 후회가 된다고 했다. 연구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라고 묻자, 부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리지 않아서 후회가 된다고 했다. “스스로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면 후회를 하게 되나요?”라고 묻자 부는 어릴 때 밭에 가서 풀을 뽑을 때 대충 하면 소리 지르고 화를 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게 되었다고 했다. 오늘 가족이 서로 말을 하지 않고 그림을 그릴 때 어땠느냐고 묻자, 상대방 의도를 잘 몰라서 답답했다고 했다. 부는 미술활동을 통해서 스스로가 완벽하지 못하면 자신을 비난한다는 것과 가족들도 완벽하지 못하면 ‘비난’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모는 그동안 부가 상처 주는 말만해서 늘 비참하고 외로웠으며 같이 비난하거나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당신도 한번 당해봐라!”는 식으로 살다보니 자신의 몸에 베어버린 것 같다고 했다. 모는 딸을 감당하기 힘들어 차라리 미쳐버렸으면 하고 바랄 때도 있었으며, 딸이 커가면서 우울증이 심해졌고, 자살하고 싶을 때도 있었다고 했다. 딸이 가출했을 때도 부는 모가 집에서 똑바로 안 해왔기 때문에 딸이 가출한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시키고 원망을 해서 충격 받았다고 했다. 연구자가 부에게 “모가 똑바로 안 해온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묻자, 모가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서 술 마시고 실컷 놀고 밤늦게 들어오고 아이들한테 모범적이지 못한 행동을 많이 한다고 했다.

2회기에 딸은 지금까지 아무하고도 터놓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다고 했으며 집이 너무 싫어서 가출했다고 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 희망이 없다며 죽고 싶다고 했다. 삶에 대한 의욕이 없는 점으로 보아 자아존중감이 무척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모님과 얼굴도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했으며 대화도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연

구자가 “부모님의 얼굴도 안보고 싶고 대화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는데 그동안 부모님께 많이 섭섭했는가 보구나? 라고 하자, 딸은 부모님께 이야기를 해도 마음을 몰라주고 화만 내기 때문에 말을 안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이 상책’이라는 전략으로 부모와의 대화가 단절되었음을 시사했다.

3회기에 딸은 부가 지나치게 통제하고 너무 완벽해서 답답하다고 했다. 부모님의 사이가 좋아지면 덜 답답할 것 같다고 했으며, 부모님의 관계가 서로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자신도 가족과 관계가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을 나타냈다. 딸은 자신이 지금까지 문제행동을 한 것에 대해 후회된다고 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평생 동안 고통 속에 힘들게 살아가는데 지금이라도 깨닫게 되어 다행이고 가족과 좋은 관계를 희망한다고 했다. 연구자는 이제 멋진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와 지지를 해주었다.

* 초기단계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가족관계 변화에 대한 분석

가족관계는 부의 비난적인 대화패턴과 모의 미성숙함으로 인해 부부갈등과 정서적 단절로 가족과의 정서적 거리를 초래하였으며, 긍정적이고 기능적인 가족의 분위기를 맺지 못하고 있는 역기능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화목한 가족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갈등으로 인한 과잉간섭과 통제는 딸에게 정서적으로 치명적인 해를 입혔으며 가족간의 부정적인 의사소통과 부모와의 심리적 갈등으로 딸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여 가출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딸은 학교도 가기 싫어했으며 힘들게 공부할 필요도 없고 아무나 결혼해서 살면 되지 공부 잘해서 부모님한테 잘 보이고 싶지도 않다고 말하여 자존감이 아주 낮음을 보여주었다. 그동안 혼란과 방황으로 인해 학교와 가정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다보니 심리적으로 지쳐있는 상태여서 가족의 관심과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딸은 가족과 서로 정서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은 서로 비난적인 대화로 불안과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딸은 자신을 부모와 격리시키고 부모를 거부하며 대화를 회피하였다. 또한 자신을 고립시키고, 부모가 중요시하는 공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수동공격적인 자기 방어적 행동으로 표출하였으며,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결여되어 있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 부모의 탓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과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기 자신도 잘 모르겠다며 자기를 질책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패턴은 학교의 담임교사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었으며, 반항적인 문제행동으로 인하여 학교생활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3회기에 딸은 가족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희망하였으며 연구자도 딸의 변화된 모습에 격려와 지지를 해주었다.

② 제 2 단계: 탐색단계(4-7회기)

탐색단계에서는 가족구성원 각자 자신의 문제점을 찾고 스스로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가족구성원에 대한 이해와 가족관계에 대해 깊게 탐색하도록 중점을 두었으며, 프로그램 구성 방법은 미술활동을 통해 작업한 자신의 작품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과 가족의 역동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가족과의 심리적 갈등과 자신의 문제에 새로운 직면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시키고 억압된 감정표출로 감정을 정화시키고 이를 긍정적으로 승화시켜 자신과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하도록 초점을 두었다.

4회기에서 모는 딸이 술을 마시고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올 때 남들한테 창피하고 딸이 밋고 내 딸이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모는 어릴 때 폭력과 알콜 중독, 마약으로 가족을 힘들게 했던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때 심정은 아버지가 밋고 죽이고 싶었다고 했다. 학교에 가서도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고 불안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다고 했으며 자신을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한 어머니가 한없이 미웠고 원망스러웠다고 했다. 언니와는 자주 싸웠는데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실 때는 많이 맞았다고 했다. 자신이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힘들게 살아왔으며, 모두 자신이 못나서 딸이 잘못된 것이라고 딸의 뺨을 때렸던 것도 후회되며 이제는 아이들한테도 자상한 모가 되고 싶고 가족에게 잘하고 싶다고 했다. 연구자가 모에게 자상한 어머니가 되고 싶고 가족에게 잘하고 싶다고 했는데 어머니의 변화로 가족이 이제 행복할 것 같이라며 용기를 북돋우어 주었다. 본인은 어떤 일을 하면 즐겁습니까? 라고 묻자, 부가 집에 오면 불안해서 밖에 나가는 것이 편했고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웃고 노래 부르고 놀면 즐거웠는데 집에 오면 더 허전하고 외로웠다고 했다. 모자신의 문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았으면 좋겠다고 하자, 취미생활이나 직장을 다니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본인은 잘하는 것이 없다며 친구가 꽃가게를 하는데 도와주고 싶다고 했다.

5회기에 부는 그동안 딸이 잘못될까봐 바르게 잡아줘야 된다는 생각에 때리기도 하고 강하게 했었는데 바람직하게 변화되지 않고 딸이 가출하고 계속 빗나가니까 조금증이 나타나 불안했다고 했다. 그동안 딸한테 협박을 해

도 안 되어서 더 이상의 방법이 없어서 화가 치밀고 정신이 돌 것 같았다고 했다. 그러나 상담 받고 아내도 많이 좋아졌고, 딸도 나아지는 것 같아서 희망이 보인다고 했으며 그동안 부모의 문제로 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가정을 불행하게 만든 본인이 원망스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동안 부모한테 배운 방법대로 자식을 키우면 되는 줄 알았다고 했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자녀가 달라지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고 했다. 딸은 부가 슬퍼보였을 때의 모습이 생각난다고 했으며 부가 일에 지쳐있을 때와 자신이 부를 속상하게 해서 슬퍼보였다고 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잘해야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6회기에 부는 자신의 무지(無知)를 포장하며 딸에게 강요했던 욕심이 오늘의 이런 결과를 가져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연구자는 자녀들에게 과잉기대와 욕심, 대리만족과 보상심리로 인해 자식들을 힘들게 하면서도 자신들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제 원인을 찾게 된 것 만으로 아주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며 희망이 보인다고 하자, 모가 "다 선생님 덕분이예요." 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딸은 부모님께 잘해야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잘못된 행동이 습관이 돼서 잘 안 고쳐진다고 했다. 연구자는 '부모님께 잘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된 사실만으로도 대단한 변화라며 지지해 주었다.

7회기에 모는 지난날이 가슴 아프다고 했으며, 자신이 그동안 병들어 있었다고 했다.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늘 참아내는 부에게 사랑하면서도 미워했다며 양가감정을 보였으나 이제는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웃을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보자고 했다. 부는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 지금 그래도 많은 날들이 남아 있음을 생각하면 조금은 위안이 된다고 했으며 살아가는 동안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했다. 딸은 요즈음 변하려고 노력하는데 좀 힘들다고 했으며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힘들 때 엄마 아빠가 옆에 있어 줄게" 라고 문자로 보내주었던 말이 든든했다고 했으며 상담 받고 가족이 변화되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왜 진작 변하지 못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연구자는 그동안 가족이 방어패턴을 쌓아놓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제 그 갈등의 원인인 방어벽을 헐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라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깨닫고 긍정적으로 변화되어가는 모습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라며 가족구성원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해 주었다.

* 탐색단계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가족관계 변화에 대한 분석

딸은 자신의 문제행동에 대해 되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하게 되었으며 구체적인 목표의식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었다. 그전과 같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며, 문제집을 사서 스스로 공부를 해보겠다고 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과의 긍정적인 변화로 인해 점차 안정을 찾게 되어서 공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모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힘들게 살아왔지만, 요즈음은 부가 잘해주어서 힘들지 않다고 했다. 그전처럼 화를 안내고 집안일도 많이 도와준다고 기쁘다고 했다. 가족이 모두 편안해졌다고 했으며 딸과 대화도 자주한다고 했다. 그리고 딸이 상담받기 전에는 부모 얼굴도 안쳐다봤는데 이제는 대화를 편안하게 하게 되었다며 딸이 예뻐졌다고 했다. 딸에게 비난하지 않고 폭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약속 때문에 자신도 무척 힘들지만 많이 참으면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딸이 부모와 대화를 편안하게 하게 된 점으로 보아 가족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딸이 스스로 공부를 하겠다는 노력을 보인 점은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제 3 단계: 변화단계(8-10회기)

변화단계에서 프로그램 구성 방법은 미술치료 과정 중 가족구성원들의 내면의 억압된 감정표출과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해소시키고 자기 자신을 재정립하는 과정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긍정적으로 변화하도록 하였으며, 가족과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가족에 대한 이해와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긍정적인 가족관계로 변화되어 나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8회기에 모는 딸이 미운 짓을 할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너무 충격적인 행동을 하니 미워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딸이 옛날에는 양심이 하나도 없었는데, 요즈음은 많이 변해서 양심적으로 되었다고 했다. 이제는 가출하지도 않고 돈도 덜 쓰려고 하고, 밤늦게 시내를 돌아다니지도 않으며 나쁜 친구들과 만나지 않으려고 나쁜 행동을 하지 않게 되어 가족과도 친밀감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동안 자신의 못난 모습을 딸이 닮아서 더 미워했던 것 같으며, 다 못난 자신 때문이라며 눈물을 보였다. 부모노릇을 잘못해서 딸이 잘못되었다며, 딸을 어떻게 지도해야할지 방법을 잘 몰랐다고 했다. 연구자가 누구라도 효율적인 부모역할에 대해 잘 몰라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것이라면서 이제라도 깨닫게 되어 다행이라

고 말하자, 부는 앞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웃을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애써보자고 했으며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모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며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가족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했다.

9회기에 모는 상담받기 전에는 딸이 가출해서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나쁜 행동만 하고 다녀서 불안하고 걱정했었는데 요즈음은 집에서 공부도 하고 함께 지내니까 좋다고 했다. 목소리도 예뻐졌고, 말도 부드럽게 한다고 했다. 모는 자신도 많이 변했으며 화를 안낸다고 했다. 상담받기 전에는 자신도 싫었고 가족 모두 다 미웠는데 지금은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졌다고 했다. 이제는 화가 나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남편을 이해하려고 한다고 했으며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화를 안내게 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동안 가족들에게 아무 도움도 못 주면서 집에서 놀기만 했고 가족에게 악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들어서 죽고 싶었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했다. 그동안 잘못을 회피하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상담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된 양육태도에 대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했다. 본인이 변하게 된 것은 부의 힘이 컸다고 했다. 상담 받고 부터는 부가 화를 안내고 편안하게 대해주니까 딸도 많이 변화되었고 가족 모두 편안해진 것 같다고 했다. 연구자가 모는 처음에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고 모두 다 부의 문제라고 했으며 부는 모가 처신을 잘못해서 딸이 빗나가게 된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직면시키자, 모는 모두 다 자신이 못나서 가족들에게 도움이 안 되었고 상담 받으면서 자신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 죄책감도 들어서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했다. 부는 스스로 잘못된 점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으며,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게 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했다. 부는 상담받기 전에는 모가 말도 하지 않고 화만 냈는데 요즈음은 많이 변해서 아이들한테도 잘 받아주고 편안하게 대해주니까 아이들도 마음을 많이 털어놓고 대화를 하게 되었다고 했다.

연구자는 가족이 자신을 되돌아보는 가운데 스스로 깨닫게 되었으며 가족이 서로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터놓고 어떠한 이야기도 편안하고 자유스럽게 하는 가운데 신뢰감이 더 커지게 된 것이라며 신뢰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 믿고 지켜봐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지해주었다.

10회기에 모는 그전 같으면 딸의 행동에 대해 무엇이든지 못마땅해서 화를 냈는데 자신도 딸을 보는 태도가 긍정적으로 달라졌다고 했다. 딸의 행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게 되니까 딸이 이해가 된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을 미워했기 때문에 자신과 똑 닮은 딸을 보며 더 화가 났고 미워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다. 딸한테까지도 고

통을 심어준 못한 엄마로서 자신은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으며, 실패된 삶을 살았었다고 했다. 모는 지금까지 힘들고 우울할 때 늘 술을 마셨는데 어릴 때 아버지가 알콜중독으로 술을 마시고 폭행하는 장면을 수도 없이 보면서 자랐으며 술을 지긋지긋하게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술로 괴로움을 잊으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딸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자신이 뭐가 잘못된 행동인지 못 깨닫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친구들과 술 좀 마신다고 그게 그렇게 나쁜 행동인가? 라며 스스로를 합리화시켰다면서 이제는 딸의 마음도 이해가 가고 자신의 행동도 이해가 간다며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신을 위해서도 이제는 모범적인 엄마와 아내로서 살고 싶다고 했다. 딸이 그동안 후배한테 14만원을 빼앗아서 선배한테 주었는데 부가 그 후배를 불러서 오늘 돈을 갚아주었다고 했다. 그런데 부가 딸한테 화를 내지 않고 다음부터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조용히 타일렀다며 신기한 일이라고 말했다. 모는 딸의 표정이 밝게 변해서 온 가족이 즐겁다고 했으며, 딸이 가족과 이야기도 잘하고 잘 웃으며 동생하고도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 신기하다고 했다.

* 변화단계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가족관계 변화에 대한 분석

변화단계에서 연구자는 가족 구성원에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자유롭게 대화를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딸이 상담받기 전에는 부모님과 대화를 잘 하지 않았으나 자신의 주장을 하게 되었고 부모님과 편안하게 대화를 하게 되었다. 또한 부모님이 걱정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하게 되었다. 딸이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딸이 자신의 문제행동에 대해 깨닫고 긍정적으로 변화된 모습은 자아존중감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부모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으로 인해 딸이 안정을 찾게 되었고 부모에 대한 신뢰감 형성으로 심리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부는 그동안 딸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무시하고 비난적으로 대했다며 대화방법을 바꿔야겠다고 했으며 하루에도 몇 번씩 딸에게 전화해서 관심을 많이 쏟는다고 했다. 이와 같은 부의 변화는 가족미술치료를 통해 가족과의 대화패턴에 대한 잘못된 점을 인식하고 깨닫게 되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딸은 아빠를 생각하면 '잘해야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으며, 가족이 서로 웃으며 편안하게 대화를 하며

즐겁게 웃으며 살고 싶다고 했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가족과의 친밀한 의사소통으로 가족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제 4단계: 종결단계(11-13회기)

종결단계에서 프로그램 구성 방법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재구성하고 가족의 소중함과 가족관계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지속적인 유지와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구성원 모두 자신감을 가지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심리적인 변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회기를 마무리 하는데 있어서 심리적인 준비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가족미술치료를 통해 가족관계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초기의 목표에 대한 평가와 그동안의 느낌에 대해 서로 이야기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11회기에 부는 자신을 눈사람으로 표현하면서, 눈사람은 가장 차가운 느낌을 주지만 차가운 날씨에도 오래 견디는 것으로, 자신은 안으로는 차갑고 냉정하지만 따스한 면도 많다고 말했다. 모는 자신을 코스모스와 잡초로 비유했으며, 코스모스는 여리지만 잡초는 강함을 나타낸다고 했다. 모는 지금까지 자신이 잘 견디며 살아 왔던 것 같다고 했다. 고등학교 때는 사람이 이래서 미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본인이 자살하게 되면 엄마도 따라 죽을 것 같아서 못 죽었다고 했다. 그 당시 집이 너무 싫어서 언니와 함께 가출을 했었는데 어머니를 지켜주기 위해서 집에 돌아 왔었다고 했다. 그러자 딸이 "내가 엄마 닮았네?" 라고 말했다. 딸은 자신을 허브에 비유했으며, 허브는 키우기가 힘들다고 했다. 그러나 잘 키우면 향기가 나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즐길 수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허브는 자기 자신이 유별나게 까다롭지만 적응이 되면 좋아하게 되고 매력을 느끼게 된다고 했다. 연구자가 딸에게 "허브를 잘 키우면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딸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부모님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라고 말하자, 부는 '자기에게 관심을 더 주라는 뜻이네요?' 라고 말했다.

12회기에 딸은 그전에 같이 놀았던 선배언니한테서 돈 가지고 오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부모님께 알려주었다고 했다. 부가 언니들을 혼을 냈다며 이제는 부가 자신을 지켜주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다고 했다. 연구자가 그전에는 선배들이 괴롭힐 때 부모님께 알리지 않았느냐고 묻자, 딸은 문제가 커질까봐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비언어적 <가족협동화>를 통해 느낀 점에 대해 서로 나누어보자고 하자, 모는 자신의 생각을 말로 전달하지 않으니 상대방의 마음을 파악하기가 참 힘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으며, 부는 '자신이 숨은 메시지'가 담긴 이면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신뢰를 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연구자는 가족이 서로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가운데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누구도 비난받지 않아야 한다고 하자, 모든 가족이 서로 신뢰하고 솔직하고 진정한 대화를 해야 서로 친밀감을 느낄 수가 있고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13회기에 모는 딸이 요즈음은 외출도 줄어들었고 공부를 하려고 애를 쓴다고 했다. 자기 행동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으며 옛날에는 자기 방문을 잠그고 가족과 얼굴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으며, 대화도 전혀 하지 않으려했는데 지금은 방문을 열어놓고 편안하게 대화하고 동생과 장난도 많이 친다고 했다. 부가 딸한테 요즈음은 잘해줘서 그런지 딸이 부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연구자가 가족이 모두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니까 딸도 걱정과 불안이 없어지면서 가족과 편안하게 대화를 하게 되었고 부모님에 대한 믿음도 생기게 되어 공부도 하려고 애를 쓰게 된 것이라고 하자, 모는 아이들이 부모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는 줄 몰랐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된다고 했다. 옛날에는 부가 집에 있으면서 밖으로 나가고 싶었고 대화하기가 싫었으며 가족 분위기는 마치 코미디 프로의 "대화가 필요해" 가족과 똑같은 분위기였다고 했다.

* 종결단계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가족관계 변화에 대한 분석

초기단계와 비교해서 종결단계에서 딸은 부모와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미술활동을 통한 자기통찰로 자신의 변화된 모습과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되도록 노력하였다. 부모 또한 딸에게 온정적으로 대해주게 되어 가족이 안정감을 갖게 되었으며, 가족이 편안하게 마음을 터놓는 가운데 서로 이해를 하게 되었고, 정서적으로 친밀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 결과 가족의 감정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가족관계가 긍정적인 관계로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딸은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어떠한 이야기도 부모에게 터놓고 표현하게 되었고 표정도 매우 밝아졌으며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공부에 대한 관심도 가지게 되었으며 스스로 열심히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게 된 것은 가족미술치료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출여중생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가족관계에 대해 알아보려고 가족미술치료를 실시하여 그 효과를 규명해보려고 하였다. 가족미술치료 프로그램은 가족구성원이 미술활동을 통하여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반 구조화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진행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미술치료는 가출여중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에는 가출여중생의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났으나 가족미술치료를 통하여 부모자녀와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되어 사후에는 가출여중생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가족미술치료 과정 중 미술활동을 통해 억압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게 됨으로써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해 통찰하게 되고 나아가 진실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며, 또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가족미술치료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검사에서 부모-자녀의 부정적인 의사소통으로 부모-자녀 의사소통 점수가 낮게 나타났지만, 미술치료과정에서 부모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 되어 부모-자녀 의사소통 점수가 사후에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족미술치료 과정 중 미술활동을 하는 가운데 부모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과 역기능적인 가족관계가 되었다는 것과 딸의 문제가 곧 부모의 문제로 인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딸의 행동을 이해해주고 수용해주는 부모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으로 인해 딸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깨닫고 부정적인 상호작용과 왜곡된 대화패턴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표현을 하게 되었으며, 부모에 대해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가족미술치료는 가족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적 가족화에서 가족관계가 사전에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으나, 사후에는 긍정적인 가족관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가족미술치료 과정 중 미술활동을 통하여 부모자신이 딸에 대한 지

나친 간섭, 집착, 통제, 비난 등 비효율적인 양육태도로 인해 부정적인 가족이 되었으며, 부모는 원 부모에게 배운 방식 그대로 양육했을 뿐, 효율적인 양육방법을 깨닫지 못해서 가족이 서로 고통 속에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부모 스스로 자녀에게 간섭과 통제, 구속에서 벗어나 주제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양육태도를 수정했다. 이는 부모 스스로가 가족의 행복을 위해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게 된 점이 자녀도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다보는 계기가 되어 문제행동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자아존중감 회복으로 가족전체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치료 목표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가족미술치료 프로그램이 가족관계를 긍정적으로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넷째, 초기단계에서 부모님의 갈등으로 인한 과잉간섭과 통제는 딸에게 정서적으로 치명적인 해를 가져왔으며 딸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였다. 또한 역기능적인 가족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어 가출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탐색단계에서는 자신의 문제행동에 대해 되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문제행동에 대해 깨닫기 시작했으며 가족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변화단계와 종결단계에서는 부모 스스로 부적절한 양육방법에 대해 깊이 깨닫게 되면서 온정적인 양육방법으로 변화되었으며 딸도 안정을 찾게 되어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가족이 서로 편안하게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가운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가족미술치료를 통한 부모-자녀와의 긍정적인 대화는 자녀를 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게 됨으로써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되고 학교와 가정에서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상으로 연구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종합해 볼 때, 가족미술치료는 가출여중생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으며, 가족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논의와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은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사회적인 환경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화될 수 있으므로 가족의 특성과 사회적 요인에 의한 다양한 분석에 기초한 심도 깊은 가족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자녀의 심리적 관계는 자녀에게는 직접, 간접으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원만한 부모-자녀관계와 효율적인 부

모 역할 수행을 위한 부모교육 및 의사소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에 따른 효과성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가족관계, 가족미술치료

참 고 문 헌

- 강승규(1992). 나를 존중하는 삶. 서울: 학지사.
- 권기덕, 김동연, 최외선(2000). 가족미술치료. 대구: 동아문화사.
- 권혜진(1993). 모-자녀간의 의사소통양식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편(2005). 심리척도 핸드북 1. 서울: 학지사.
- 공석영(1998). 생활지도와 상담. 서울: 동문사. 52-53.
- 김봉소, 이희도, 김서린(1974). 비행청소년의 자아구조 및 가정환경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지도연구, 7(1), 2-11.
- 김선관(2000). 가출소년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 광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희(1989). 부부관계, 부모-자녀 의사소통, 가족기능과 청소년 자녀비행과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희화(1998).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 환경변인 및 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민하영(1991).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수(1990). 가정교육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심층적 면접에 의한 분석.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 송정아, 최규련(2005). 가족치료 이론과 기법. 도서출판: 하우.
- 송정화(2005).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에 미치는 효과.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정현(2000). 교류분석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식, 홍성도(2003). 청소년 그리고 정신과 의사와의 만남. 서울: 하나의학사.
- 전미향(1997).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자기존중감과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병제(1974). 자아 개념 측정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11.
- 정경숙(1985). 청소년 부적응 행동에 있어서 Minuchin과 Haley의 가족치료 접근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문자(2007). 사티어 경험적 가족치료. 서울: 학지사.
- 정주향(1993). 경계선 성격 비행청소년에 대한 가족치료 사례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경옥(2001). 역기능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일탈행동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례(2003).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와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22(2), 363-383.
- 최선남(1997). 적응장애 아동의 가족미술치료 사례연구. 미술치료연구, 4(2), 143-152.
- 최선남, 최외선(2000). 실직으로 인한 위기 가족의 가족미술치료 사례. 한국미술치료학회 제 7차 연차학술발표대회 자료집, 193-204.
- 최외선, 정현희(2004). 동적가족화와 심리진단. 대구: 중문.
- 최유진, 유계숙(200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이 교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25(3), 59-75.
- 한국미술치료학회(1995).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대구: 동아문화사.
- Bames, L. Howard & Olson. H.(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8-447.
- Burns, R. C., & Kaufman, S. H.(1970). *Kinetic Family Drawings(K-F-D): An Introduction to Understanding Children through Kinetic Drawings*. N. Y. Brunner/Mazel.
- Burns, R. C., & Kaufman, S. H.(1972). *Action, Styles, and Symbols in Kinetic Family Drawings(K-F-D): An Interpretive manual*. N. Y: Brunner/Mazel.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 Galvin, K. M., & Brommel, B. J.(1986). *Family Communication-Cohesion and Change*(2nd ed). 111inois: Scott, Foresman and Company.
- Meyer. D.(1976). *Parent's Handbook*. American Guidance Service : Circle Pines.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erman, R., & Fredman, N. (1986): *Handbook of Structured Techniques in Marriage & Family Therapy*. 부부·가족치료 기법. (김영애 역, 2006).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세계일보 편집국 인터넷 뉴스팀 토크블로그 (<http://net.segye.com>), '가출 여중생, 6개월 감금 성매매' 2007년 6월 4일자.

(2007. 7. 19 접수; 2007. 10. 8 채택)